

20년동안 청년 25만명 전남 떠났다

광전연 통계 분석 발표... 여수 3만7868명 가장 많아 목포·고흥 순 2002년 2만6천여 명 정점, 2015년 기점 증가... 지역 동력 사라져

전남에서 청년들이 급속히 사라지고 있다. 지난 2000년부터 2020년까지 20년간 무려 25만8182명의 20~34세 청년들이 전남을 떠난 것으로 조사됐다. 청년들이 사라지면서 지역의 역동성이 떨어지고, 경제 전반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 질 높은 일자리 창출, 가고 싶은 대학 육성, 청년들을 위한 문화·편의시설 구축 등 정부와 지자체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광주전남연구원이 16일 발간한 '한눈에 보는 광주전남'에 따르면 전남의 청년층(20~34세) 순유출 인구는 2015년 이후 계속 증가하는 추세로, 시·군별 청년인구 누적 순유출이 가장 많은 지역은

여수시, 가장 적은 지역은 광양시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16개 군이 인구감소위 기지역인 전남의 청년인구 순이동자 수 통계(2000~2020년)를 분석한 결과 최근 20년간 청년 인구 누적 순유출은 여수시(3만7868명)가 가장 많았고, 목포시(2만4394명), 고흥군(2만152명)이 그 뒤를 이었다. 전남 22개 시·군 가운데 유일하게 광양시에서만 2011년부터 2018년까지 청년 인구가 순유입됐다.

연도별 청년 순유출 인구수를 살펴보면, 2002년 2만6741명으로 최고점을 찍은 뒤 이후 감소세를 보이다가 2015년(4323명)을 기점으로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2019년 9165명, 2020년 1만2059명 등으로 2007년(1만1515명) 이후 다시 1만 명을 넘어섰다. 연도별 순유출률이 높은 지역은 2016년 장흥군(20.85%), 2002년 강진군(16.60%), 2020년 구례군(15.23%) 순으로 나타났다.

민원정 광주전남연구원 인구정책지원연구센터장은 "국가불균형성장으로 수도권지역에 대한민국의 인구의 반 이상이 거주하는 비정상적 상황에서, 청년인구가 교육과 일자리, 더 나은 생활 인프라를 찾아 수도권지역으로 옮겨가는 사회적 유출이 전라남도의 인구감소와 고령화를 심화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청년에게 공정한 기회와 성장의 터전이 될 수 있도록 계속 거주가 가능한 전남의 가치 재창출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국 인구감소지역 89곳에 최대 210억 지원

신안 2년동안 112억~210억·광주 동구 28억~53억 지원

전국의 인구감소 지역 89곳이 각각 올해부터 내년까지 12억~210억원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받는다. 신안과 광주 동구가 각각 군 단위와 구 단위 지자체로는 가장 높은 수준의 기금을 받는다.

인구감소 위기 극복을 위해 10년간 매년 1조원을 지원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이 배분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행정안전부와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기초자치단체(인구감소지역 89개, 관심지역 18개)와 광역자치단체(서울·세종 제외 15개 시도)를 대상으로 2022~2023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금액을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향후 10년간 매년 정부출연금 1조원을 재원으로 지원되며 기초자치단체에 75%, 광역자치단체에 25%의 재원을 각각 배분한다.

다만 올해는 7500억원이 지원되고 내년부터 1조원이 배분된다. 올해는 제도 도입 첫해로 2년분 배분금액이 결정됐다. 투자계획 평가 5개 등급에 따라 우수한 사업을 발굴한 인구 감소지역과 관심 지역에 더 많은 금액이 배분된다.

이번에 최대 금액을 받는 기초자치단체는 신안, 충남 금산, 경북 의성, 경남 함양 등 '인구감소 지역' 4곳으로 2년 동안 최소 112억원에서 최대 210억원을 받는다. '관심 지역'인 광주 동구 등 5곳은 최소 28억원에서 최대 53억원을 배부받는다. 이 밖에 광역자치단체에도 올해와 내년에 걸쳐 전남 882억원, 경북 847억원, 강원 602억원, 경북 560억원 등이 지원된다.

/김지우 기자 dok2000@kwangju.co.kr

코로나 재유행 정점 20만명 이내... 느린 속도로 감소할 것

숨은감염자 영향 아직 크지 않아 휴가철·날씨 등 변동 가능성도

코로나19 재유행의 정점이 이달 말 20만명 이내 수준에서 형성된 뒤, 느리게 감소세로 접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또 코로나19 기준 변이보다 전파력이 빠르고 면역 회피 특성이 강한 BA.5 변이가 국내 우세종이 된지 한달 만에 검출률 90%를 넘어선 반면, 코로나19 재감염자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역학조사분석단장은 16일 브리핑에서 "8월 말 정도까지 유행 정점이 예상되고, 그 이후로 천천히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며 "급격하게 감소하기보다는 좀 느린 속도로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 단장은 7~8개 기관의 유행 전망 자료에서 공통점을 추려 결론을 낸다면서 "(정점의 하루 확진자 규모는) 가장 나쁜 상황에서 33만명까지 예측한 기관이 있지만, 대부분은 11만~19만명 정도, 20만명 이내라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람들의 접촉이 얼마나 빈번하게 일어나는지, 백신과 자연 감염을 통한 항체나 면역 수준이 얼마나 낮아지는지, 실내 환경에 오래 머물게 되는 등의 계절성 요인 등이 앞으로 유행 전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도 "전문가들은 8월 중으로 일평균 20만명 전후로 정점을 맞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측한다"며 "감염재생산지수가 지난 주 대비 소폭 증가(1.14→1.18)했지만 유행 추세는 아직 크게 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유행세가 휴가철 이동량, 최근 기상악화 영향 등에 따라 변동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휴가와 폭우 등 맞은 날씨 중심상이 있어도 감사를 받지 않는 경우가 늘어 숨은 감염자(확진 판정을 받지 않은 감염자)가 증가했을 것이라는 우려



광주지역 코로나 19 확진자 수가 6만여명이 넘어서는 등 16일 현재 일일확진자 수가 2600여명으로 집계되는 가운데 광주 남구 빗고을노인건강타운 내 수영장, 목욕탕, 식당 등 다중이용장소가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운영 중단을 알리는 일일판이 게시되어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가 나오지만, 방역당국은 아직 숨은 감염자의 영향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판단했다.

이달 둘째 주(8.7~8.13) BA.5 변이 검출률은 87.9%로 전주(76.3%)보다 11.6%p 상승했다. 특히 BA.5 국내감염 검출률은 75.2%에서 16.3%p 오른 91.5%로 90%를 넘었다.

BA.5 우세종화가 더욱 뚜렷해지면서 BA.2 검출률은 1.5%까지 떨어졌다.

전파력이 더욱 높은 BA.5 변이 확산으로 재감염자를 포함한 확진자가 늘고, 고령층 사망도 증가 추세다. 8월 첫째 주(7.31~8.6) 주간 확진자 중 재감염 추정사례 비율은 6.11%로 전주

(5.43%)보다 0.68%p 늘었다.

주간 확진자 중 재감염 비율은 7월 첫째 주부터 한달 간 2.87%→3.71%→6.59%→5.43%→6.11%로 7월 셋째 주를 기점으로 5~6%를 유지하고 있다.

코로나19 국내 발생 이후 8월 첫째 주까지 누적 확진자는 2016만8802명(7일 0시 기준)인데, 이중 재감염 추정 사례는 18만3617명으로 발생률 0.91%를 나타냈다. 누적 재감염 추정 사례 18만 3617명 중 2회 감염은 18만3306명(99.8%), 3회 감염 311명(0.17%)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한국인, 美 대통령 신뢰도...트럼프 17%→바이든 70% 급상승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미 대통령에 대한 한국인의 신뢰도가 급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 여론조사기관은 퓨리서치가 올해 1분기 미국의 17개 우호국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해 지난달 말 발표한 조사에서도.

이 조사에서 한국 국민의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신뢰도는 2022년 기준 70%로 취임 첫해인 2021년 67%보다 3%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주한미군 분담금 대폭 증액을 요구하며 주한미군 철수 위협까지 하는 등 동맹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때보다 급상승한 것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한국 국민의 신뢰도는 취임 첫해인 2017년 17%에서 시작해

2018년 44%, 2019년 46%로 올랐지만, 임기 마지막 해인 2020년 또다시 17%로 떨어졌다.

올해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신뢰도는 폴란드가 가장 높았고 한국은 2위에 올랐다.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신뢰도 증감률은 60%였다.

주목할 부분은 17개국 중 작년과 비교할 자료가 없는 3개국을 제외한 14개국 중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신뢰도가 오른 나라는 한국이 유일했다는 점이다. 대부분 국가에서 바이든 대통령 취임 첫해인 2021년 미 대통령 신뢰도가 트럼프 행정부 시절보다 큰 폭으로 올랐다가 올해는 줄줄이 하락했지만, 한국은 지속적으로 높은 신뢰를 유지한 국가에 해당한다는 뜻이다.

/연합뉴스

전남산림자원원, '무궁화 우수분화 품평회' 대통령상

전남산림자원연구소가 지난 15일까지 6일간 전남 보령에서 개최된 산림청 주관 제32회 나라꽃 무궁화 전국 축제 '무궁화 우수분화 품평회'에서 대통령상인 영예의 대상을 차지했다.

전남도는 무궁화 전국 축제에 70점의 분화를 출품해, 광역시도가 참여한 단체부문과 개인부문 모두 최고상을 휩쓸었다. 단체부문 대상을 비롯해 개인부문에서도 함평 정천수씨가 농수산부장관상인 최우수상을, 나주 김의훈씨가 산림청장상인 장려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거뒀다.

이번 무궁화 품평회는 전국 17개 시도와 전국무궁화생산자연합회에서 출품한 대표분화 1200점이 경쟁을 벌였으며, 작품성, 관리성, 심미성, 참

역성 등에 주안점을 두고 심사가 이뤄졌다. 특히 전남이 출품한 분화는 현장에서 실시된 시민평가 부문에서 좋은 점수를 획득했다.

전남도는 이번 대상 수상으로 2020년 은상, 2021년 은상 등 3년 연속 수상의 금지탑을 쌓았으며, 전국 최고의 무궁화분화 육성과 품종관리의 높은 수준을 다시 한번 전문가들로부터 인정받았다. 특히, 이번 품평회 성과는 무궁화의 저변확대와 품질향상을 위해 산림자원연구소에서 추진한 무궁화에 대한 재배 시기별 관리방법 체계화, 시군 역량강화를 위한 '찾아가는 무궁화 재배·관리 컨설팅' 등이 한몫했다는 평가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경기,수도권 투자
5억원 이상
(주)오천. 010-3605-5000

지분 부동산
부동산 삽니다
맹지사절. 010-6837-4700

꼭! 받아야 할 돈 회수

※ 일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못받으신 건 맡겨주십시오!
새로운 방법으로 저희는 추심합니다.
23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절대 수수료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은행·차량 등 파악
- 실거주지 파악 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전문추심인 직적관리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사·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당
24시간 상담가능

중앙신용정보
010-2860-4700
직통전화 062)521-4109

풍수 사주 수강생 수시 모집 및 상담

기운을 바꾸는 풍수~!
주책, 사업장은 물론 산소까지, 있는 그대로의 상태에서 보다 좋은 터전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개강(개월과정)
일시: 2022.9.13 (화) 오후7시
장소: 심미운기풍수지리학회 교육장
(무등로478-1: 신수오거리 → 무등산방향입구 우측2층)
수강료: 풍수 + 사주 20만원 (매월)

공개강좌(무료)
일시: 2022.9.6 (화) 오후7시
장소: 상동(심미운기풍수지리학회교육장)
대상: 누구나 (선착순 00명)

컨설팅(전문상담) 분야

- 천기비법 대 공개
- 기갑풍수 비법 교육
- 분묘, 이장, 납골당 및 수목장 수액과 풍화
- 음택, 양택의 풍수 감정 및 비보
- 사업(장사) 부진의 풍수적 진단
- 사주 교육 및 감정(사주, 궁합, 택일 등)
- 작명(신생아, 개명, 상호 등)

심미운기풍수지리학회
010-2246-1508

합병 공고
(채권자의 및 주권채출공고)
본덕산업 주식회사(이하 "갑"이라 칭한다)과 주식회사 미호(이하 "을"이라 칭한다)는 2022년 08월 16일 각각 회사에서 개최된 임시 주주총회 결의로 "갑"은 "을"을 흡수합병하여 모든 권리와 의무를 을에게 전속하며 "을"은 해산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이 흡수합병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 공고제출일 익일부터 1개월 이내에 채권회사에 이의를 제출하고 주주는 주권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면 흡수합병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함을 공고하고 최고 합니다.

2022년 08월 17일
"갑" 본덕산업 주식회사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중앙로 114, 319(차평동) 사내이사 김미정
"을" 주식회사 미호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중앙로 114, 206호, 218호, 224호(차평동) 사내이사 김미정

분할합병 공고
(채권자의 및 주권채출공고)
2022년 08월 15일 각각의 임시주주총회 결의로 주식회사 송하영지나어빌(SONGHA ENG) (갑)의 재산(영양)인부 인 전기공사인 부분을 분할하여 그 분할된 부분을 주식회사 풍양(을)에 분할합병하고 (갑)의 전기공사인 부분의 권리와 의무를 (을)에 포괄적으로 승계한 후 양사는 존속하기로 결의하였으며, 이 분할합병에 이의가 있는 주주는 주권을 제출하여 주시기 이해관 및 채권자는 이 공고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분할합병할 사업의 종류 : 전기공사사업
2. 이해관계를 가진 채권자 및 주주 권 제출기한 : 2022년08월18일 ~ 2022년09월17일

2022년 8월 17일
"갑" 주식회사 송하영지나어빌(SONGHA ENG)
서울특별시 마포구 연우로 75, 제11층 제1사무실1104호(도산동, 송정동)
사내이사 강태우
"을" 주식회사 풍양
전라남도 영암군 영암읍 동문로 39 사내이사 김청희

분할합병 및 주권제출공고
주식회사 신화전력(이하 "갑"이라 한다)과 유이전력 주식회사(이하 "을"이라 한다)는 2022년 08월 12일 개최된 각 사의 임시주주총회에서 "갑"의 재산인 일부인 전기공사인 부분을 분할하여 그 분할된 재산으로 "을"에 합병하고 "갑"은 존속하며, 단 상법 제330조의9 제3항에 의거 분할된 재산을 출자금으로 인정하고 "을"은 출자 받은 재산 이외의 채무에 대하여는 연대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이 회사 분할합병에 반하는 채권자는 본 공고 게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본회사에 이의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또한 각사의 주주는 해당사에 주권을 분할하여 제출하시기 바라며 이에 공고함.

2022년 8월 17일
"갑" 주식회사 신화전력
전라남도 여수시 무선6길31 (선영동)
대표이사 박승희
"을" 유이전력 주식회사
전라남도 여수시 좌수영로 1075, 1층(주상동)
대표이사: 이우이

분실공고
무등산자이&어울림 운전 공금계약서:
광주광역시 북구 우산동 470번지 무등산 자이&어울림 116동 3102호
계약자: 배지현
위와 같이 분실공고함.
2022년 8월 17일

ABC협회인증 호남 최대 발행부수
독자와 함께 걸어온 길 70년
先州日報

공장 임대

해조(다시마, 미역, 건어물) 및 냉면, 수제비, 국수 제조 사업하실 분 환영합니다.

완도군 완도읍 죽청리 농공단지 내

면적: 공장 150평, 냉동창고 200평 (급냉동, 냉장 3칸 높이 9m), 지게차 2대 (전동식)

시설: 최신기계설비완비, 공장 즉시 가동 영업 가능

금액: 보증금 및 임대료 상호협의

주인직 ☎010-2390-5343, 010-9300-5072

先州日報

70년을 밝히는 호남언론의 상징 - 지역과 함께, 독자와 함께 "100년 신문"을 향해 달려가겠습니다.

지국인내

북구

- 동 광 266-1920
- 문 총 266-1960
- 북광주 525-3761
- 신 안 222-8171
- 광 산 571-7658
- 오 치 266-7601
- 동 흥 433-1503
- 유 신 433-1503

동구

- 남 광 673-6836
- 동 흥 222-9054
- 남 부 673-6836
- 동 흥 222-9054
- 창 정 222-8171
- 동 흥 222-9054

남구

- 남 부 673-6836
- 백 은 651-1833
- 동 흥 673-6836
- 송 화 675-6805
- 진 울 671-7276

서구

- 광 천 382-5788
- 삼 무 372-2352
- 서광주 369-1625
- 운 천 376-7153
- 치 평 376-6511
- 풍 말 603-0311
- 화 정 369-1625

광산구

- 운 남 952-1687
- 월 곡 959-1920
- 침 단 973-2900
- 하 남 955-0451
- 광 산 944-0444